

“일·가정 양립, 中企 성장에 필수... 인구 비상사태 극복해야”

‘중소 일·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

중기중앙회, 저출생 위기극복 동참 여경협·이노비즈협 등 19곳 참여 업계, 육아휴직 확대지원 등 건의

범 중소기업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대안을 함께 모색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중기중앙회 외에도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여성건설인협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대한여성변리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세무사회, 대한여성치과의사회 등 19개 협회 및 단체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앞줄 왼쪽 2번째부터)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수 고용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이들 단체는 출범한 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관련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소기업협·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출생 문

제 해결방안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81%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며 “중소기업계가 이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함께 노력해 우수사례를 더 많이 만들고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에게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뉴노멀(New Normal)”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과제를 꼽자면 단연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과 문화의 조성’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 키울 시간을 마련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성별 차별이 없고 유연한 근무환경이 갖춰진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사업주 지원 확대 ▲영세사업장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홍보 강화 등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영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소기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해선 정부지원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에 맞게 제도가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 뚝뚝뚝 ‘상생’... 사업미래 연다

소진공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협력과 상생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이 있다.

여러 소상공인들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해 매출 증대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소상공인의 미래를 보여주면서다.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충북 옥천군의 알렉산드리아협동조합은 농가 간 협업을 통해 성장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조합에선 기계, 품종, 재배, 가공, 유통 등 각자 다른 분야에 몸담았던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와인 포도로 유명한 최고급 품종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를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특히 조합이 효자 상품인 스파우트 파우치 착즙 주스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이 큰 힘이 됐다.

2016년 롤 포장기, 스탠딩 포장기, 스파우트 포장기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저온창고, 급속주스냉각설비, 진공압축시스템 등 설비 구축 덕분에 단일 품목 판매에서 벗어나 과채 주스 등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조합은 포도 농사를 중심으로 귀농인 양성을 위한 ‘포도밭일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힘쓰고 있다.

급성장한 렌탈 시장에서 브랜드로 사업에 날개를 단 프랜차이즈조합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대구광역시에서 프린터와 복합기 등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도쿄식품박람회(이하)에 참석한 알렉산드리아협동조합 관계자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실시 경쟁력 높이고, 안정적 수익모델 창출

옥천 알렉산드리아조합, 농가 협업 스파우트 파우치 착즙주스 등 생산

대구 프렌즈조합, 렌탈시장 브랜드 사무기기 임대... 3년새 100배 성장

의 사무기기 임대업을 운영하는 이 조합은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확실한 브랜드에 집중한 결과 전국 유일의 사무기기 협동조합으로 거듭났다.

2019년부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해 브랜드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아 기업 이미지(CI)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완성했다.

조합은 사무기기 전문업체로 이미지를 확실히 굳힌 후에는 사무기기 전반에 대한 투자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대형 레이저젯 복합기를 대량 구매해 신규 거래처를 확대하고 캐노과 전문대리점 협약 체결, 공동 구매·판매 개척 등을 통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며 제품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제2 항공전투비행단 등의 관공서를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며 조합 설립 3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하는 쾌거를 이뤘다.

네트무협동조합은 사진 관련 일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인 사회적기업이다.

2015년 설립 이후 문화 콘텐츠 기획과 방송 중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을 촬영해 주거나 지역 청년 등 주민을 대상으로 포토샵, 조명 활용 교육과 같은 재능 기부도 하고 있다.

이곳 역시 소진공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비를 확충하고 인쇄물과 홍보영상 제작, 옥외광고 등 다양한 도움을 받았다.

이같이 체계적인 지원은 제품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기획, 현장 방송 중계 등 다방면의 사업 분야를 확장하며 성장하는데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한편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5인 이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대상이다. 사업은 기반 마련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어플리케이션 등), 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매 등을 중점 지원한다.

소진공은 2020년 이후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5회 지원받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졸업제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각자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기르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3분기 누적 벤처투자 8.6조... 11% 증가

중기부, 글로벌 투자규모 19% 하락 ICT서비스 47%, 전기·기계 24% ↑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이 성장하며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에 따르면 벤처투자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8조5808억 원으로 전년 동기의 7조7118억 원에 비해 1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벤처투자 규모는 2051억 달러로 전년 동기의 2521억 달러에 비해 18.6%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385억4000만 달러였던 유럽도 올해 들어선 340억1000만 달러로

11.7% 줄었다. 다만 미국은 1235억 달러에서 1314억 달러로 6.4% 늘었다.

한국의 경우 업종별로는 ICT서비스(46.8%), 전기·기계·장비(24.4%) 등이 전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분기까지 펀드결성 규모는 총 8조2024억 원으로 전년 동기(8조5528억 원) 대비 4.1% 감소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나라 벤처투자는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이행을 통해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올해의 중진공인에 박혜영 등 3명 선정

중진공, 경영·사업·지역혁신 3개 분야 총 112건 혁신 사례 발굴, 현장서 발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6회 올해의 중진공인(人) 선발 경진대회’를 개최해 기관과 사업운영 전반에 우수 혁신을 선도한 3인의 중진공인을 선정했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해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업무성과가 높은 부서를 포상하고 있다.

중진공은 경진대회에 앞서 ▲경영혁신 ▲사업혁신 ▲지역혁신 등 3개 분야로 나눠 총 112건의 혁신사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최우수과제로 선정된 9건의 사례는 중진공인 최종 후보로 선발

해 경진대회 당일 현장에서 발표했다.

경진대회에선 전 직원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 내·외부 40인으로 구성된 ‘KOSME 현장평가단’ 평가와 일반시민과 중소기업인 등이 포함된 ‘국민참여단’의 모바일 평가 결과를 합산해 각 분야별 고득점자 1인씩, 총 3인을 올해의 중진공인으로 선정했다.

경영혁신 분야에는 저출산 시대에 맞춘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실천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혁신 추진!’(박혜영 인재경영실 대리), 사업혁신 분야에는 정책자금 지원목적 달성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사전검증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자금 투명성UP, 부정사용 OUT!’(고은영 대출관리실 대리)이 뽑혔다.

/김승호 기자